

【연구논문】

캐롤의 성적 욕망과 생태학적 사고: 헨슨의 『몬트레이 철학자들』

이건근
(조선대)

1. 서론

미국의 대표적인 신화연구가인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정신적인 교감이 없는 결혼을 “이단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간통(spiritual adultery)”라고 혹평하고 있다(Campbell and Moyers 190). 또한 그는 사랑의 정신적인 충격을 의미하는 아모르(Amor)의 철자를 거꾸로 한 로마(Roma)를 사랑의 반대개념으로 삼아 중세기의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정략결혼과 유추하여 비판하고,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랑은 영국의 랜슬롯과 귀니비어(Lancelot and Guinevere)와 단테(Dante)가 소개한 파올로와 프란체스카(Paolo and Francesca)의 불륜의 사랑이야기가 보여주듯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캠벨은 육체적 욕정으로 아내를 얻은 남편을 한때의 영웅으로 칭하면서도 “[그는] 더 이상 육체의 여신과 순결한 상태로 남을 수는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죄의 여왕이 되었기 때문이다”(No longer can [he] rest in innocence with the goddess of the flesh; for she is become the queen

of sin)라고 말하기도 한다(*Hero* 123).

그런데 공공롭게도 캠벨은 그가 이십대 후반이었던 1932년에 캘리포니아의 몬트레이(Monterey)에서 간통까지는 아닐지라도 불륜의 사랑을 경험하였는데, 그 여인은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첫째 부인이었던 캐롤(*Carol*)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태학적 토론을 했던 에드 리케츠(*Ed Ricketts*)도 유부남이었지만 수많은 여성들과의 스캔들로 유명했으며, 이 지역 생태시인 로빈슨 제퍼스(*Robinson Jeffers*)도 그의 아내인 우나 콜 쿠스터(*Una Call Custer*)와 칠년간의 금지된 사랑을 나누고야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스타인벡의 당시의 소설 「국화」(*“The Chrysanthemum”*)와 『미지의 신께』(*To a God Unknown*)는 캐롤의 강한 성적 욕망과 그녀의 외도를 주제로 농후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욕정은 자연의 힘과 동일하다는 주제를 생태학적이고 범신론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한편, 마이클 헨슨(*Michael Hanson*)은 위의 당시 젊은 지식인들의 만남을 캐롤과 캠벨의 연애사건이라는 일종의 극적 요소로 소설화한 작품을 『몬트레이 철학자들: 존 스타인벡, 조셉 캠벨 그리고 에드 리케츠의 언급되지 않은 우정』(*The Philosophers of Monterey: The Untold Friendship of John Steinbeck, Joseph Campbell & Ed Ricketts*)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출간하였다. 그가 서문에서 이 책이 완벽한 소설(*complete fiction*)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등장인물의 이름의 약칭 또는 다른 실제 인물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빼놓고는 거의 사실과 틀림없다.¹⁾ 이를 연구배경으로 하여 필자는 이 책의 내용을 검증된 사실들을 중심으로 고찰

1)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쉐링 로(*Shillinglaw*)의 『캐롤과 스타인벡』과 잭슨 벤슨(*Jackson Benson*)과 제이 파리니(*Jay Parini*)와 같은 스타인벡 전기 작가의 글과 캠벨의 일기를 토대로 고증한 바이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 스타인벡과 종교와 신화연구가인 캠벨 그리고 몬트레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생물학자인 리케츠가 무명시절 때 서로 만나서 사고를 교환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과 특히 스타인벡의 아내 캐롤이 이들 젊은 학자들의 교제관계의 접합점이 되었다는 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준 바는 작품의 문학성하고는 관계없이 매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하고, 캐롤과 캠벨의 연애사건이 스타인벡의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세 명의 학자들의 사고들을 제퍼스의 생태학적 입장에서 통합시켜보고자 한다.²⁾ 이 연구는 전례가 없는 바이며, 영미문학과 신화론 그리고 생물학의 각기 다른 분야에 걸친 이들의 업적들에 대한 이해에 적으나마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2. 몬트레이 철학자들의 우연한 만남과 스캔들

헨슨은 『몬트레이의 철학자들』의 서문에서 캠벨이 신화학연구자가 된 동기를 그가 경험한 스타인벡과 리케츠와의 우정과 캐롤과의 연애사건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캠벨은 “좀 더 커다란 신비의 의미를 나타내는 인간의 보편적 부분들은 존재하며, 그것들은 우리가 말[했던] 이야기들 속에 [늘] 등장하고 [있었다]”(there [were] universal parts of humanity that [pointed] to the larger mysteries of meaning, and those things [always] [showed] up in the stories we [told])고 주장한다(14). 1932년에 캠벨은 유럽에서 공부했던 산스크리트, 현대예술 그리고 중세문학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 콜롬비아(Columbia)대학의 교수들로부터 거절된 채 박사과정을 중단한 상태로 미국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런 도중에 그는 몬트레이에서 다른 철학자들 즉, 스타인벡과 리케츠와 우연하게 만나게 된 사건은 그의 방황의 중단이자 진로의 계기가 된 셈이었다.

2) 인간의 성적 욕망과 생태학적 이론은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그녀가 오르가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남성의 정자를 자신의 몸에 얼마만큼 간직하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성행위가 강렬하고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더 많은 정자가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적어도 불륜적인 여성의 경우에 남편과의 성교점 이후 임신할 확률이 사십 퍼센트인 반면, 정부하고는 칠십 퍼센트인 것으로 드러났다(Nye 222). 한편 남성의 생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지만, 굳이 성교접한 여성의 난자에 자신의 정자가 착상되길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정자가 자신이 만들어놓은 통로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그것을 공격하려고 한다(Nye 223).

『몬트레이의 철학자들』의 처음부분에서 캠벨은 산타 바바라에서의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떠나 홀로 캘리포니아 101번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던 중, 공교롭게도 살리나스(Salinas)에서 만난 지인의 정보로 그가 대학시절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 아델(Adele)을 만나게 된다. 화가이며 자유분방한 그녀는 침울해진 그에게 활기를 주지만, 이미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보다 철학의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캠벨에게는 따분한 상대이다. 결국, 그녀는 언니인 캐롤과 형부인 소설가 존 스타인벡에게 캠벨을 소개하는 바람에, 그의 여정은 버클리에서 다시 남쪽으로 다시 내려와 몬트레이로 향하게 된다. 스타인벡과 캠벨의 첫 만남은 마치 오랜 친구의 해후와 비슷하였고, 생태학적인 철학에 동질성을 강하게 느낀다. 예를 들어 캠벨은 스타인벡의 소설인 『미지의 신계』의 원본을 아낌없이 칭찬하며, 이것은 총체적 지식(collective knowing), 보편적 심리(universal psyche), 인간화된 자연(personified nature) 그리고 자연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들의 다양성(multiplicity of living gods in nature)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한편, 스타인벡은 캠벨에게 자연은 살아있는 실체이며, 『미지의 신계』에서 나오는 농가는 살아있는 예배당과 같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의 생태학적 사고는 유일신의 명령으로부터 인간과 자연을 해방시키고 동시에 개별적인 인간들의 경험들이 하나의 생태계에서 통합된다는 점에서 리케츠의 비목적론과 닮은 점이 많다. 즉, 이들은 신이 정한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이론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캠벨은 이미 노출된 진리는 너무나 강해서 완화용 필터가 없다면 인간에게 충격을 줄 수 있기에 모든 이야기들이 상징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고, 인간은 이러한 상징물을 기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스타인벡은 사실주의적인 어표(logo)가 신화적 상징(mythos)보다 오히려 우선시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문학을 망치기 쉬운데다 자연은 의식에 대해 사실은 알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열린 상견례를 나눈 캠벨은 스타인벡과 같은 곳에 거주하게 되고, 몬트레이의 한 치과에서 우연하게 만난 리케츠와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된다. 이미 폭넓은 인지도를 얻고 있던 생물학자인 리케츠는 그의 아내인 낸(Nan)과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가정적이지 못하고 경제적 욕심이 적은 탓에 탁월한 지식과 수완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음악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교제에만 몰두한다. 결국, 그의 가족은 떠나고 그는 항상 우울하고 외로운 철학자로서의 삶을 지낸다. 특히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를 방문하는 자들은 작가, 예술가는 물론이고, 그 지역의 창녀들과 가난뱅이들이기도 하다. 가장 연장자인 리케츠는 스타인벡, 캠벨, 캐롤 그리고 아텔과 해변에서의 사격, 산타 쿠르즈(Santa Cruz)로의 표본조사 여행, 토로 산(Mount Toro)에서의 하이킹 등을 하면서 유희를 즐긴다.

한편, 캠벨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으로서 캐롤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무뚝뚝하고 소심한 남편 스타인벡보다 잘생기고 고상한 성격의 캠벨은 그녀의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캠벨은 그가 가진 불륜의 연애감정을 통해 에로스(Eros)와 신화적 감흥은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고, 왜 역사적인 연애시인들이 율법적인 수도사들이었는지 이해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캐롤은 아마도 “그리스 신들이 [그녀와 캠벨을] 곤란한 처지에 빠지도록 구상하였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마련한 듯하다”고 개탄한다(Hanson 93).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키스와 포옹의 수준을 넘어선 단계로는 이르지 않고, 무엇보다 현명한 캠벨은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깨닫는다. 즉, 그녀가 그에게 보인 정서는 스타인벡의 편집증적인 저술활동과 그에 따른 애정결핍으로 인한 것인 뿐인데다가 설령 그녀가 이혼하고 자신과 뉴욕으로 간다고 해도 새로운 도회지에서는 결코 행복해 할 수 없는 캘리포니아 토박이임을 알고 있다.

『몬트레이 철학자들』의 후반에 이르러 리케츠는 이들 두 남녀에게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이렇게 밝힌다.

“나는 사물의 원인들에는 관심이 없다. 모든 것들이 원인들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특히 이것이고 또는 저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체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나는 영웅과 악당,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ve no concern for causes of things. All things are causes. You cannot suss it out, say it’s this particular thing or that particular thing. The only way to do that is to have a specific point of view. I do not want heroes and villains, problems and solutions. All that duality, same side of same coin stuff” (Hanson 119).

이와 같이 리케츠는 캐롤과 캠벨의 불륜관계를 비목적론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애정의 적법성 또는 타당성은 당시의 윤리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인간들이 항상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우선시하여 상황을 판단한다 해도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스타인벡은 미안해하는 캠벨에게 캐롤의 행위는 자신의 탓이 크다고 고백하자, 캠벨은 운명에 대한 인간의 미예지력을 개탄해 한다. 마지막으로, 캐롤은 떠나는 캠벨에게 스타인벡이 그녀를 필요로 하고, 그녀 역시 한낱 연애감정보다 자신의 남편의 작품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다음에서 필자는 이와 같이 실제로 존재한 몬트레이 철학자 세 남자들의 우연한 만남과 헤어짐의 이야기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캐롤의 강한 성적 욕망이 그녀의 남편의 문학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캠벨이 그의 일기에서 고백한 캐롤과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진실이 스타인벡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했었을 것임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의 분노와 실망감이 이 시기에 쓰인 단편소설 「국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으며,³⁾ 동

3) 「국화」는 1937년에 출판되었지만, 1933년에 쓰였음이 밝혀졌고, 이것은 『미지의 신

시에 캐롤과 처음 사귀었던 시기부터 저술해왔던 『미지의 신계』에서 여성의 성욕과 자연의 힘의 유추관계가 신비주의적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지의 신계』는 겉으로 보면 신화적이고 몽상적인 내용으로 독자들의 몰이해를 양산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내막을 더 들여다보면 스타인벡의 문학적 리얼리즘이 캠벨의 신화적 영웅주의를 처절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3. 캐롤의 성적 욕망과 스타인벡의 소설

1991년에 캠벨의 전기문 『마음속의 불(A Fire in the Mind)』이 출간되고 나서 그전에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그와 캐롤과의 사연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는 1930년 초에 스타인벡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캐롤의 매력에 이끌렸다고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Shillinglaw 104). 한편 캐롤의 외모에 대해서 잭슨 벤슨(Jackson Benson)은 “예쁜 얼굴이라기보다는 키가 크고, 잘생긴 미남형”으로 평가하고(133), 넬슨 벨지언(Nelson Valjean)은 “장난기가 많은 재치”(puckish wit)를 가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캐롤의 쾌활한 남성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캠벨은 솔직하고 환한 미소를 가진 그녀의 성적 매력을 흠모했던 반면 스타인벡은 그의 어머니 올리브 해밀턴(Olive Hamilton)에 비해 유약했던 아버지처럼 캐롤의 강한 성격과 항상 충돌되었고, 이들이 결혼한 지 3년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가 성적 불화합성(sexual incompatibility)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전기적 사실에 비추어 비평가들은 단편소설 「국화」의 주제는 주인공 엘리사(Elisa)의 충족되지 않은 성적 욕구의 좌절이며, 그녀의 만

『미지의 신계』가 출판된 해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 이 두 작품들의 주제적 배경의 동일한 점은 캐롤과 캠벨의 연애사건이며, 이것을 필자는 강조하고 있다.

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이 이 작품의 저작동기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최한용 204).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맥만(Elizabeth McMahn)은 소설 속 주인공 엘리사와 그녀의 남편 헨리사이에 무언인가가 분명히 결핍된 바가 있고, 그것은 아마도 신체적 교접의 필요성일 것이라고 주장한다(455-456). 또한 마릴린 미첼(Marilyn Mitchell)은 엘리사가 자신의 성적 욕망과 일치된 힘을 땀장이에게서 발견하였지만, 헨리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34).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캐롤과 캠벨의 불륜의 행위가 「국화」의 등장인물 또는 상황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이다. 이에 대해 캠벨의 증언에 기초한 헨슨의 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화」에서의 성적 이미지와 비교 가능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뺨은 눈물로 촉촉하게 젖힌 채 마르지 않았다. 이제는 평화롭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캠벨은]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맞춤을 하더니, 차츰 뺨으로 입으로 옮겨 갔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한기가 그의 몸을 관통하자, 그는 일어나서 라디에이터에 섰다. 그리고 방을 가로질러있는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시 와요, 죠” 그녀는 속삭였고, 그녀의 눈을 여전히 감겨있었다. . . . 그들의 다리는 휘감겨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팔을 그의 몸에 감싸고 머리를 그의 가슴에 댔다. . . . “존은 키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한 번도 나에게 키스를 하지 않아요. 그저 그의 입술은 충동이 없다고만 말해요.” 죠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를 그의 가슴속으로 꼭 껴안았다. . . . “. . . 나를 키스로 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여, 단지 키스를.”

Moonlight fell in shards over her face, her cheeks were moist with tears not dry. Joe knelt beside her. So peaceful, even now. [Campbell] kissed her on the temple, then the cheek, then the mouth. She didn't stir. A chill ran through him and he got up and stood by the radiator, staring at her from across the room. “Come back, Joe,” she said it in a whisper, her eyes still

closed. . . . Their legs entwined, and she wrapped her arms around his body and put her head against his chest. . . . “John doesn’t like to kiss. He never kisses me. Says his lips have no nerves.” Joe said nothing. He held her closer than ever. He squeezed her into his chest. . . . “. . . Crucify me with a kiss. Jesus Christ, just a kiss.” (Hanson 108-109)

그녀는 말을 멈추었고 난처해하는 것 같았다.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봉오리가 맺는 때예요” 그녀는 망설이는 듯이 말했다. /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 그녀는 그의 눈을 탐색하듯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입을 약간 벌리고 있어서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말해 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재배자의 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인” “자, 나는 단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만을 말해드릴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원치 않는 봉오리들을 떼어내는 시간인데요. 당신의 손끝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손가락이 일하는 것을 그저 관찰하는 거죠. 손가락들 스스로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들이 봉오리들을 계속 골라내지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결코 실수하는 일이 없죠.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이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 . . 그곳에 무릎을 꿇은 채로, 그녀의 손이 기름때 묻은 바지를 입고 있는 그의 다리를 향해 뻗어 있었다. 그녀의 머뭇거리는 손가락들이 거의 그 옷에 닿을 뻗 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마치 아양 떠는 강아지처럼 낮게 웅크렸다.

She stopped and seemed perplexed. “It’s the building that takes the most care,” she said hesitantly. “I don’t know how to tell you.” She looked deep into his eyes, searchingly. Her mouth opened a little, and she seemed to be listening. “I’ll try to tell you,” she said. “Did you ever hear of planting hands?” / “Can’t say I have, ma’am.” / “Well, I can only tell you what it feels like. It’s when you’re picking off the buds you don’t want. Everything goes right down into your fingertips. You watch your fingers work. They do it themselves. You can feel how it is. They pick and pick the buds. They know. They never make a mistake. You can feel it. When you’re like that

you can't do anything wrong. Do you see that? Can you understand that?" . . . Kneeling there, her hand went out toward his legs in the greasy black trousers. Her hesitant fingers almost touched the cloth. Then her hand dropped to the ground. She crouched low like a fawning dog. (Steinbeck, *Valley* 8)

위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제이 파리니(Jay Parini)는 “캐롤은 [성적] 관심에 굶주려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캠벨은] 캐롤이 간절히 원하던 유혹의 관심을 제공했던 셈”이라고 주장한다(121).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스타인벡이 캐롤이 캠벨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중인 것을 목격할 바를 “국화”에서 엘리사가 땀장이의 바지에 손을 뻗은 것으로까지 유추하여 표현하고, 실제로는 작가 자신보다 젊고 잘생겼으며 도시풍인 캠벨을 마차를 타면서 유랑하는 큰 체격의 굵은 손을 가진 정력이 강한 남성 상으로 변형한 것은 캠벨에 대한 질투심이라기보다 저술활동 때문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잃어버렸음을 토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헨슨이 적시하고 있듯이 스타인벡이 캠벨에게 “자네가 [캐롤]과 키스를 해야 되네, 죠 캐롤은 그것을 필요로 해. 나는 [이제는] 나의 입술에 아무런 신경도 없어. 나는 키스를 하는 것이 싫어”(125)라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그가 자신의 최고 성공작인 소설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를 저술한 이후 캐롤에게서 벗어나 자기에게 순종하던 권돌린 콩고(Gwyndolyn Conger)에게로 마음이 돌아서게 된 단초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 여성의 성욕구의 불만을 다룬 「국화」와는 다르게 『미지의 신계』는 “범신론이라는 이름의 신화적 저항에 기초한”(based on a mythological resistance named pantheism) 작품으로서 스타인벡의 무신론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권위주의적인 종교보다는 인간의 집합적 무의식과 관련된”(related to human collective unconsciousness rather than authoritative religion)것으로 볼 수 있다(Lee 487). 이 외에도 스타인벡은 캐롤의 강한 성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동시

에 다음과 같이 신비주의적 표현으로 포장하고 있다.

[조셉은] 풀밭을 마주하고 몸을 던졌으며 그 축축한 줄기들에 자신의 뺨을 꼭 대었다. 그의 손가락들은 젖은 풀을 움켜쥐고 그것을 찢듯이 뽑아내고 나서, 또다시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땅위로 힘차게 부딪혔다.

[Joseph] flung himself face downward on the grass and pressed his cheek against the wet stems. His fingers gripped the wet grass and tore it out, and gripped again. His thighs beat heavily on the earth. (Steinbeck, *Unknown* 9)

빈터의 중앙에는 집 더미같이 커다란 바위 한 개가 서있었는데, 그 모습은 신비로웠고 웅장하였다. 그 형태가 너무나 교묘하고 현명하게 보여서, 기억 속에 그것과 상응한 모양을 본 적이 없었다. 짧고 무성한 이끼가 부드럽게 융기된 형태로 그 암석을 메우고 있었다. 그 건물은 이전에 녹아서 스스로 무너져버린 제단과 같은 것이었다. 바위의 한 쪽에는 조그만 검은 동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아하게 장식된 모양이었고, 작은 공지(空地)를 가로지르며 그 빈터의 외곽을 이루는 얽힌 덩굴숲으로 사라졌다.

In the center of the clearing stood a rock as big as a house, mysterious and huge. It seemed to be shaped, cunningly and wisely, and yet there was no shape in the memory to match it. A short, heavy green moss covered the rock with soft piles. The edifice was something like an altar that had melted and run down over itself. In one side of the rock there was a small black cave fringed silently and crossed the glade and disappeared into the tangled brush that edged the clearing. (Steinbeck, *Unknown* 31)

이와 같이 『미지의 신께』에서 스타인벡은 인간의 성적 욕구가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는 본능과 일치되며, 여성의 성기 내부를 신비롭고 고귀한 숲속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성적 만족감이 강렬한 자연의 힘과 동일함을 묘사하고 있다(Lee 476). 또 다른 예로서, 조셉 웨인(Joseph

Wayne)의 아내인 엘리자베스(Elizabeth)가 그에게 “나는 그 바위를 사랑했어요.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나는 당신 또는 [우리] 아이 또는 내 자신보다 그 바위를 더 사랑했어요”(I loved the rock. It’s hard to describe. I loved the rock more than you or the baby or myself)(Steinbeck 127)라고 말한다.⁴⁾ 결국 이것은 스타인벡이 캐롤의 성적 욕망이 일면 불가항력적임을 말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조셉이 스타인벡을 대신하여 충분한 성교의 필요성을 또는 성적 욕구를 지니고 있음은 엘리자베스와 이 바위에서 성교를 한 장면이외에도 그녀가 죽은 직후 그의 형수인 라마(Rama)로부터 위로를 받은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즉, 그들의 열정적인 불륜의 성행위이후 라마가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 . . 그것은 내 안에 있던 욕구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필요한 것 이었어요”(It was a need to you. . . . It was a hunger in me, but a need to you)라고 하여 그녀가 이루지 못한 성욕의 대상이 그녀의 시동생인 조셉임을 밝히고, 이제는 다시 그가 완전하게 되었고, 그녀가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의 한 부분이 되기 원한다함을 고백한다(Steinbeck, *Unknown* 139).

그 다음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셉이 가뭄을 해결하고, 신령한 바위를 살리기 위해 자기목숨을 희생하는 부분이다. 즉, 그가 죽어간 순간 때마침 내린 비가 기도의 대상인 자연신이 준 선물인지 아니면 원래 그 시기가 되면 발생하는 우연한 자연현상일 뿐인지를 독자들에게 묻는 듯하지만, 필자는 스타인벡이 아마도 자신의 문학적 리얼리즘이 연적인 캠벨의 신화적 이론보다 더 설득력이 있음을 보이려 한

4) 스타인벡은 『미지의 신께』의 원본에서 엘리자베스가 조셉의 잘생긴 남동생 벤지(Benji)와 성교를 임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캐롤이 캠벨에게 느낀 성욕을 표현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나중에 저자는 벤지를 대신해서 엘리자베스의 창문 밑에서 낯선 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캠벨을 연상하게 한 벤지는 유부녀와 간통하는 장면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저자의 보복적인 의도를 추측하게 할 수 있다(Shillinglaw 121).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밝은 색의 피가 이끼위로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숲 주위에서 바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은 점점 잿빛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윽고 시간이 흐르자 조셉도 잿빛이 되었다. 그는 옆으로 누워 그의 손목을 뻗었고 그의 몸의 검고 긴 산맥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그의 몸은 커져가고 가벼워졌다. 그것은 하늘 안으로 오르더니 그것으로부터 세찬 빗줄기가 세어 나왔다. “나는 알았어야 했어,”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바다.” 그러나 그는 무덤덤하게 자신의 몸의 산맥들에서 언덕들이 심연으로 떨어진 것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휘몰아치는 비를 느꼈고, 그것이 땅위로 통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의 언덕들이 습기로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때 통증이 찌르는 듯이 세상의 중심으로 날카롭게 전해졌다. “내가 땅이다,”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바다. 이제 잠시 후면 내 안에서 풀이 자랄 것이다.” 그리고는 폭풍이 두꺼워졌고, 어둠으로 세상을 덮었다. 그리고 세찬 물줄기도 함께.

He watched the bright blood cascading over the moss, and he heard the shouting of the wind around the grove. The sky was growing grey. And time passed and Joseph grew grey too. He lay on his side with his wrist outstretched and looked down the long black mountain range of his body. Then his body grew huge and light. It arose into the sky, and out of it came the streaking rain. “I should have known,” he whispered. “I am the rain.” And yet he looked dully down the mountains of his body where the hills fell to an abyss. He felt the driving rain, and heard it whipping down, pattering on the ground. He saw his hills grow dark with moisture. Then a lancing pain shot through the heart of the world. “I am the land,” he said, “and I am the rain. The grass will grow out of me in a little while.” And the storm thickened, and covered the world with darkness, and with the rush of waters. (Steinbeck, *Unknown* 183-8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셉은 그가 성스럽게 생각했던 그래서 자신의

피로 메마른 바위를 적시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자연물들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 비를 직접 간직한 신적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즉, 인간의 성에 관한 판단을 바위와 나무와 같은 상징물이 가진 신화적 견해보다 자신의 몸을 통한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고가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⁵⁾ 이러한 스타인벡의 태도는 헨슨의 『몬트레이 철학자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철학자들과 캐롤과 아텔의 점괘판 실험 즉, 지하의 세계에 메시지를 전한다는 공포게임에서 리케츠의 끔찍한 목소리 연기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깜짝 놀랐지만, 스타인벡은 오히려 자기 근처에 있던 촛대를 거꾸로 들고 던질 준비를 한 반면에, 캠벨은 그 촛대에 넘어지는 등 당황함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캠벨은 영혼의 세계를 인정하겠지만, 리얼리즘 작가인 스타인벡은 이를 부정하고 유명행세를 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비평가들은 대체적으로 『미지의 신계』에서의 “강한 정서의 강한 표현”(strong expression of a strong emotion)과 “무성하고 격정적인”(lush and furious) 내용이 거슬린다고 했다고 비판했다(Dawson 19). 이는 결국 캐롤의 성적 욕망으로 인한 스타인벡의 스트레스가 상당했음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버지니아 발니(Virginia Barney)는 『미지의 신계』가 “애매모호한 정서와 관련성이 없는 의미들을”(vague moods and irrelevant meanings) 이용한 작품으로서 “리얼리즘과 상징주의의 요소들이 응집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신비주의적 차원에서도 설득력의 범위를 넘어간 것이다”(The elements of realism and symbolism fail to cohere and it oversteps all the bounds of convincingness even on the mystic plane)라고 평하고 있다(18). 이것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스타인벡의 리얼리즘과 캠벨의 상징주의가 인간의 총체적이고 생태학적인 초월의식의

5)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Thus Spoke Zarathustra)에서 이와 비슷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대의 최고의 지혜보다 그대의 몸속에 좀 더 많은 현명함이 있다”(There is more sagacity in thy body than in thy best wisdom)(41).

한 골레 속에서 통합가능하면서도 캐롤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내재되어있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4. 몬트레이 철학자들이 공유한 제퍼스적 생태의식

『몬트레이의 철학자들』에서 리케츠는 캐롤과의 이별을 결심하고 찾아온 캠벨에게 자신의 관조적이고 순환적인 인생관을 말해준다. 즉, 인간의 정신적 고통은 죄의식으로 변하고, 그러한 내적 불만은 자의식과 자기 방종의 형태를 가진 채 나머지 삶을 사는 동안 썩고 병들어간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진실이 외연적인 권위와 체면으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고 인간은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리케츠는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하나의 생태학적으로 통합된다는 주장을 한다.

우리를 아프게 한 것은 오직 실망감일 뿐이야. 고통을 간직한 희망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지. 자네는 가장 밑바닥에 부딪혀야 되네, [캠벨]. . . 반복적이고 총체적인 부분. 우리 모두는 하나의 커다란 정신 세계에 기여를 하고 있어. 어려움은 좋은 것이야. 그것은 사물들을 보여 줘. 통합은 아픔을 통해 그 가는 길을 따른 결과이네.

It's only despair that hurts us. Hope with suffering is the greatest gift in the world. You've got to hit the bottom, [Campbell]. . . The perennial, collective part. We all contribute to one big psyche. Trouble is good. It shows things up. Integration is to follow the path through pain. (Hanson 131)

이와 같은 리케츠의 비목적론(non-teleology)은 한 인생의 일부분이 특정한 방법으로 되어져야 한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으로만 사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 것이며, 이는 “‘왜’ 대신에 ‘무엇’ 또는 ‘어떻게’라는 물음에 응답해야 함을 전제로 함”(attempting to answer the questions what or how, instead of why)(Hedgpeth 162)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무엇인가 또는 무슨 가치가 있나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초월해서 실재(the real)를 연구함으로써 인과관계(causality)에 대한 의식을 기피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물과 상황의 옳음과 그릇됨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영웅과 악당마저도 그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바, 그러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생태학적이 못하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력화를 위해 만들어놓은 일종의 자기규범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상기한 리케츠의 초월의식은 제퍼스의 생태의식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먼저 제퍼스는 “중요성과 강조점을 인간에서 비인간으로 옮기는 것; 인간의 유아론을 거부하고 초인간적인 것의 장엄함을 인식한 것”(a shifting of emphasis and significance from man to not-man; the rejection of human solipsism and recognition of the transhuman magnificence)으로 표현한 소위 비인간주의론을 주장하고 있다(vii). 그에 따르면 결국 “인간의 문명은 본질적으로 결합이 있으며”, 인간의 역사는 “폭력과 야만으로 가득 차 있고” 바로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인간은 생태계의 마지막 단계에 진화되어왔지만 이 지구 또는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은성 44). 반면, 동물들은 현존하는 자기의 모습대로만 인식할 뿐이며 문자화되어진 이상을 설정하여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만약 제퍼스가 논하고 있는 대로 이 행성의 모든 것이 하나이고, 하나의 개체는 모든 것을 반영한다면, 캐롤의 성적 욕망은 그 자연이 주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리케츠와 제퍼스가 공통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의 내향적 자아인식”(Brophy 32)인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리케츠의 인간의 강한 자의식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즉, 제퍼스는 이러한 사고가 항상 이기적이고 자아 중심으로 진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간성

에 전향적인 사고와 책임감을 강조한다. 사실 생물학의 근본단위가 하나의 유기물인 반면 생태학의 그것은 그 생명체들 간의 관계인 것을 감안하면 리케츠의 비목적론은 생태학적 범주에서 이해되어질 만하다. 또한 이 사고들은 인간의 이성의 힘을 절대시한 데카르트의 이성 중심주의와 개인의 자아실현을 찬미하는 에머슨의 자아관 등의 전통 서구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된다 할 것이다. 물론, 제퍼스의 시가 소우주로서의 인간의 아름다움을 주장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지만(전득주 531),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에게 유익한 바로 간주하는 금세기의 과학철학은 분명 생태학적 도덕과는 거리가 있음이 당연하다.

훗날 캠벨이 그가 캐롤을 만나고 있던 즈음 제퍼스의 글을 발견했던 소감을 밝힌 바를 보면, 그는 “나는 박사논문을 쓸 필요가 없었다. 나는 어느 것도 쓸 필요가 없었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은 [제퍼스의 시의] 문장들에 밑줄만 긋고 받아쓰는 것이었다. . . . 나는 그 일을 하는데 약 사십년을 소모하였다”(I don't have to write a thesis. I didn't have to write anything. All I did was underline sentences and taken notes. . . . I spent about forty years taking notes)(Campbell, Cousineau, and Brown. *HJ* 55)라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캠벨은 자신의 신화이론과 미학적 근거를 제퍼스가 끈임 없이 주장하고 있는 “신성하게 초과된 아름다움”(divinely superfluous beauty)(Jeffers and Hunt 53)에도 두고 있다. 그 한 예로서 그는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가 사용했던 매우 길고 큰 손도끼는 대칭적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단지 실용성뿐만 아니라 동물사냥에 따른 의식적 의미를 지닌 점에서 인간의 미적 감각은 진화가 많이 이루어진 오늘날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아마도 당시 그가 고민하던 세계의 신화연구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한 듯하다(Campbell, Cousineau, and Brown. *HJ* 71). 결론적으로 캠벨의 몬트레이에서의 체류기간동안 세 명의 남성들은 제퍼스의 생태학적 사고에 대체적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것을 자신들의 분야에서 신화적 상

진주의, 문학적 리얼리즘, 그리고 비목적론으로 발전시켜왔던 사실은 캘리포니아와 미국 역사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캐롤은 스타인벡으로부터 받은 성적 무관심과 무 배려는 이들의 성격 차이를 극대화시켰으며, 이것은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의 성공이후에 파국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스타인벡이 재혼한 당시에는 이십년 연하의 고분고분한 여성이었던 권돌린 콩고(Gwyndolyn Conger)는 오히려 캐롤보다 더욱 강한 성적 욕망으로 그에게 슬픔과 아픔을 던져주었다. 이것에 대해 스타인벡 전기 작가인 파리니는 이들 부부의 이웃인 마절리 벤첼리(Marjorie Benchley)의 말을 빌려 “[권돌린이] 다른 남자들과 경솔하게 행동하곤 했고” 스타인벡 역시 그녀에게 모범적인 남편상이 아니었던 바, “그는 그의 글쓰기를 우선하였으며, 이 사실을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393)라고 쓰고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주제로 제퍼스는 자신의 시 「타말」(“Tamar”)에서 타말을 그녀의 오빠인 리(Lee)를 사랑하도록 하게하고, 그들이 근친상간을 한 후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이것을 숨기기 위해 타말로 하여금 다른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도록 한다. 그러나 결국은 모욕감 때문에 그녀는 죽음을 갈망하게 된다.

헨슨의 『몬트레이의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여성들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강한 성적 욕망을 처음부터 그녀들의 난잡한 파티로 소개를 하고, 가공의 인물인 아델을 등장시켜 캠벨을 유혹하게 하는가하면,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그를 철학자들이 모인 몬트레이로 인도한다. 문제는 술도 마시지 않은 캠벨이 유부녀 캐롤과 사랑을 나누지만, 그의 사랑은 정신적인 반면에 캐롤은 분명 육체적인 것을 원한다. 결국 그들의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는 스타인벡의 소설들에 녹아들어서 통제된 아내의 성적 욕망이 강하다 못해 죽음과 같은 폭력적 증상으로 또는 대단히 은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헨슨은 이러한 추문을 관계가 멀게 보이는 생태학적 사고들과 연관 짓고 있는데 그 중심에 제퍼슨의 시를 두고 있다. 즉, 전통 서양사상에 기초한 윤리로는 부도덕하고 원시적으로만 보이는 여성들의 성적 욕망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적 욕망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을 스타인벡의 문학과 캠벨의 신화적 모델 그리고 리케츠의 비목적론적 과학관이 모두 인정한 셈이다.

Works Cited

- 김은성. 「로빈슨 제퍼스의 인간관과 생태의식」. 『현대영미시연구』 9.1 (2003): 41-65.
- 전득주. 「로빈슨 제퍼스의 시에 나타난 인간의 미」. 『영어영문학연구』 55.4 (2013): 531-52.
- 최한용. 「스타인벡의 『국화』와 『뱀』에 나타난 성 이미지」. 『영어영문학』 21.2 (2013): 201-17.
- Barney, Virginia. "Symbols of Earth." *New York Times Book Review* 83 (1933): 18.
- Benson, Jackson J. *The True Adventures of John Steinbeck, Writer: A Biography*. Norman, OK: Oklahoma P, 1988.
- Brophy, Robert J. *Robinson Jeffers, Dimensions of a Poet*. New York: Fordham UP, 1995.
- Campbell, Joseph.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NJ: Princeton, 2008. Abbreviated as *Hero*.
- Campbell, Joseph, and Bill D. Moyers. *The Power of Myth*. Ed. Betty Sue Flowers. New York: Broadway Books, 2001. Abbreviated as *Power*.
- Campbell, Joseph, Phil Cousineau, and Stuart L. Brown. *The Hero's Journey: Joseph Campbell on His Life and Work*. Vol. 7. New York: New World Library, 2003. Abbreviated as *HJ*.
- Dawson, Margaret Cheney. "Some Autumn Fiction." *New York Herald Tribune* 24 Sept. 1933: 19.
- Hanson, Michael J. *The Philosophers of Monterey: The Untold Friendship of John Steinbeck, Joseph Campbell and Ed Ricketts*. Bloomington, IN: Xlibris, 2010.
- Hedgpeth, Joel Walker, ed. *The Outer Shores*. Eureka, CA: Mad River Press, 1978.
- Jeffers, Robinson. *The Double Axe and Other Poems*. 1948. New York: Liveright, 1997.
- Jeffers, Robinson, and Tim Hunt. *The Selected Poetry of Robinson Jeffers*. Stanford, CA: Stanford UP, 1989.
- Larsen, Stephen, and Robin Larsen. *A Fire in the Mind: The Life of Joseph*

- Campbell*. New York: Doubleday, 1991.
- Lee, Geon-Geun. "A Mythological Resistance Named Pantheism in John Steinbeck's *To a God Unknown*." *The Journal of Mira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0.1 (2015): 469-91.
- McMahan, Elizabeth. "'The Chrysanthemums': Study of a Woman's Sexuality." *Modern Fiction Studies* 14 (Winter 1968): 453-58.
- Mitchell, Marilyn L. "Steinbeck's Strong Women: Feminine Identity in Short Stories." *Hayashi Steinbeck's Women* (1978): 26-35.
- Nietzsche, Friedrich Wilhelm. *Also Sprach Zarathustra/Thus Spoke Zarathustra: German/English Bilingual Text*. Milton Keynes, UK: Jiahu Books, 2013.
- Nye, Robert A. *Sexuality*. Oxford, UK: Oxford UP, 1999.
- Parini, Jay. *John Steinbeck: A Biography*. New York: Holt, 1996.
- Shillinglaw, Susan. *Carol and John Steinbeck: Portrait of a Marriage*. Reno, TX: U of Nevada P, 2013.
- Stanwood, Les. "Flowers for Carol: John Steinbeck, Joseph Campbell and 'The Chrysanthemums'." *Steinbeck Review* 5.2 (2008): 87-95.
- Steinbeck, John. *The Long Valley*. New York: Penguin, 1995. Abbreviated as *Valley*.
- _____. *To a God Unknown*. New York: Penguin, 1995. Abbreviated as *Unknown*.

■ 논문 투고일자: 2015. 11. 16

■ 심사 완료일자: 2015. 12. 15

■ 게재 확정일자: 2015. 12. 21

Abstract

**Carol's Sexuality and Ecological Thinking:
Hanson's *The Philosophers of Monterey***

Geon-Geun Lee

(Chosun University)

In 1932, Joseph Campbell, a pioneer of mythology, visited Monterey accidentally while having a terrible time deciding on his career, meeting John Steinbeck and Ed Ricketts. Coincidentally, they all shared Robinson Jeffers's ecological philosophy—inhumanism, centered on astonishing natural beauty against human solipsism and the reason-oriented idea of the Western tradition. Meanwhile, Hanson's *The Philosophers of Monterey* treats such an episode by using Carol (Steinbeck's wife of the time) and Campbell's illicit love affair. Given this, this paper aims to observe the book based on qualified historical data, discussing how Carol's strong sexuality affected her husband's works—"The Chrysanthemum" and *To a God Unknown*, and integrating the three men's ecological thoughts into Jeffers's. Lastly, I insist the research of their relationship during this period is significant in that the three young scholars of the time could develop the theories of their fields—literature, mythology, and biology helped by Jeffers's consciousness.

Key Words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 조셉 캠벨(Joseph Campbell), 에드 리케츠(Ed Ricketts), 캐롤 헨닝(Carol Henning), 로빈슨 제퍼스(Robinson Jeffers), 생태학(ecology)